

96.6.12



< 18 >

열린학교 우리손으로 8

함석진 기자

학교는 흔히 '문제아'들을 학교 밖으로 쫓아낸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학교조차도 포기해버리면 아이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어 막다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환부를 도려내듯 잘라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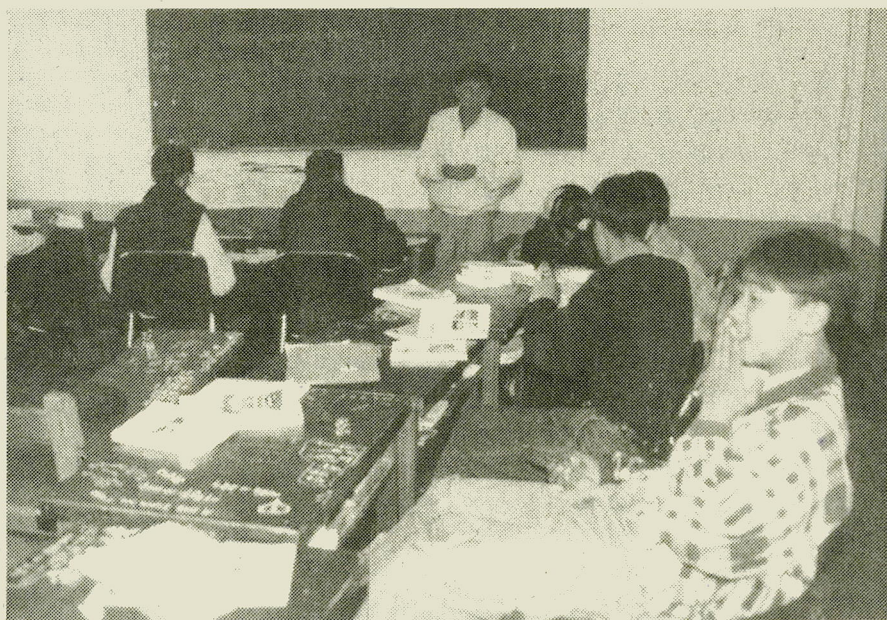
지난해말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두달 동안 구속된 학생 9천여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천여명은 퇴학 등으로 이미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었다. 학교는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상당수 교사들은 이와 관련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다 학교폭력이 없어지느냐"며 안타까워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하루는 폭력서클에 가담한 아이를 붙들어가겠다고 교실에 형사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부모와 함께 틀림없이 경찰서로 보낼테니 돌아가 달라고 통사정했지만 거절하더군요. 결국 그 아이는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고3 교사는 이런 체험담을 전해주며 "이때만큼 교사로서 참담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실에 형사대 들이닥쳐

학교폭력 등 문제아들에 대해 '격리위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교육현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문제아들이 생기면 학교장은 학교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아이들을 자퇴나 전학시키라고 교사들에게 종용한다. 교문 밖에서는 수사당국이 학원폭력 척결을 외치며 전담반까지 꾸려놓고 있다. 문제아들은 그래도 학교에 붙들려두는 게 좋다고 많은 교사들은 생각하지만 업무에 쫓기다 보면 아이들과 차분하게 상담을 하기도

도려낼 종양 아닌 고쳐야 할 아픈 살 '문제아'



대개의 학교는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문제아'들을 쫓아내지만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진은 영산성지고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학교폭력 '퇴학' 위주에 '교화' 설자리 없어 잘린 학생 모인 '사랑의 학교' 푸른색 띄워

다는 학생부로 넘겨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고 고백한다.

이런 현실에서 문제아들이야말로 더욱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학교가 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영산성지고등학교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학교에는 전국의 문제아들이 모여 있다. 학교폭력으로 '잘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습폭행으로 소년원을 들락거린 아이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이 학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학교에는 '단속'이나 '격리'라는 말이 없다. 대신 '자유스러운 자율'

만이 있다.

정춘일 정은정 박채진 최지묵... 폐교된 초등학교를 수리해 만든 이 학교의 복도 한켠에는 10여명의 아이들 이름과 함께 "금연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다. 지묵이는 3일 만에 결심이 깨졌다며 이름 위에 가위표를 했지만 호준이는 "일주일만 혼자서 참아냈는데 이제 자신이 생겼다"며 이름을 추가로 써넣었다.

이런 자율은 수업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둥그렇게 놓인 책상에 10여명의 학생들이 둘러앉아 있다. 미란이는 어제 노랑계 물들

인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반쯤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현철이는 책상에 무릎을 걸치고 앉아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도 교사는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절반 넘게 대학진학 '기적'

이 학교의 오후 수업시간표는 체육이 전부다. 말이 체육시간이지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노는 시간이다. 일주일에 3일은 풍물패 목공예반 합창반 등 동아리 활동을 한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학교 한켠에 마련된 양계장이나 도자기 가마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학교에도 아이들끼리 다투는 일은 있다. 하지만 주먹과 발길 이 오가는 일은 없다. 돈을 뺏는 일은 더욱이 상상할 수 없다. 학교폭력으로 잘린 아이들조차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학교의 이런 교육방향을 직접 본 한 학부모가 "놀던 버릇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팔쩍 뽐 적도 있었지만 이 학교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보자"며 문을 연 이후 9년 동안 이런 교육방향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학교에서 매년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학진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이나마 하겠느냐는 손가락질을 받던 아이들이나도 그렇다.

"아이들의 잠재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학교는 학생 스스로 그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폐기처분될 수 있는 '쓸모없는 불량품'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은 때론 고통스럽게, 때론 생애 처음 맛보는 희열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무주임 송기웅(36) 교사의 얘기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을 모은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